

# 추사박물관

##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1856)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노과(老果) 등 많은 호를 사용하였다.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전반 실사구시설을 제창하고 청나라 고증학의 정수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던 학자이다. 또한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한 서예가이며, 금석학을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은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 시간**    관람시간 | 9시 ~ 18시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일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포함)
  - 과천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관 랑 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 른	2,000원	1,000원	1.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으로 함
중·고생 및 군인	1,000원	500원	2. 군인은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포함)
초등학생	500원	300원	3.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6세 이하 및 노인	무 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층별안내도**

2F (605.45㎡)	추사의 생애실, 휴게실, 화장실
1F (527.11㎡)	추사의 학예실, 안내데스크,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B1F (950.63㎡)	후지츠카 기증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뮤지엄숍, 휴게실, 교육실

※ 대지면적 4,261㎡, 연면적 2,957㎡



**추사 박물관** | 13820 경기도 과천시 추사로 78(주암동)  
Tel. 02-2150-3650 fax. 02-502-1915  
www.chusamuseum.go.kr

# 추사 박물관

Chusa Museum

## 추사, 과천에서 다시 태어나다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4년간 과지초당에서 지내면서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운 곳이다. 이에 추사가 꽃피웠던 학문과 예술의 정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과천시가 추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추사박물관은 추사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추사의 생애실, 학예실, 후지츠카 기증실, 기획전시실과 체험실, 강좌실, 교육실, 휴게공간, 뮤지엄숍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박물관 야외에는 과지초당이 있다.

추사 박물관





추사의 삶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 시절의 수학, 연행을 통한 새로운 문물 체험, 북한산진흥왕순수비의 확정 등의 금석 연구, 그리고 한양에서의 관직생활, 제주와 함경도 북청 등 두 번의 유배생활, 말년 4년간의 과천생활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추사가 마주한 현실과 시대적인 변화, 추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추사의 학문과 예술을 주제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북학파의 영향으로 추사가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는 과정, 청나라 학자들과의 활발한 학예 교류, 조선 금석학 연구와 여러 계층과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또한 고전과 글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추사체'를 이룩해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후지츠카 부자의 학문적 성취와 추사 관련 유물의 기증을 기념하는 전시공간이다.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1879~1948)는 일본의 유명한 경학자이자 추사연구자였으며,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藤塚明直 1912~2006)는 추사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하였다. 후지츠카 치카시의 논문 연구, 추사를 중심으로 한 청초문화 동전의 연구, 사진으로 남은 추사글씨, 과천시의 추사연구 등을 살필 수 있다.



과지초당은 1824년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마련한 별서(別墅: 별장)로 정원과 숲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연못을 갖춘 곳이었다. 추사는 과지초당이 조성될 때부터 깊이 관여했으며, 김노경이 별세하자 가까운 청계산 옥녀봉에 선친을 모시고 3년상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1852년 8월 북청유배에서 풀려난 뒤 말년에 4년간 머물면서 학문과 예술의 절정기를 맞이한 곳이다.



추사가 연경에 가는 자하를 송별하는 시 送紫霞入燕詩 | 김정희, 1812년, 55.5×71cm



박제가 초상 朴齊家 肖像(부분)  
나빙, 1790년, 22.9×26.6cm, 사진



해동금석영기 海東金石零記  
옹방강·옹수근, 1815년경, 29×19cm



후지츠카 치카시와 그의 아들 아키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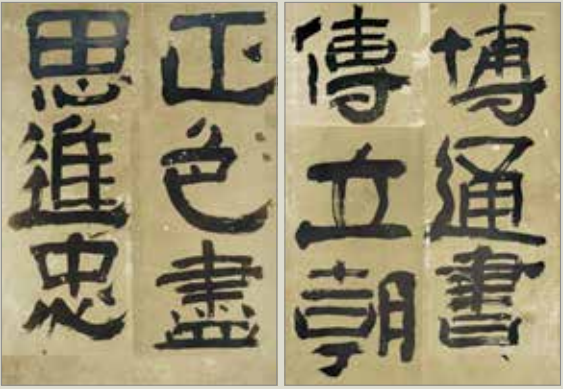
세한도 歲寒圖 영인 | 김정희, 1939년, 27×111cm



추사가 민태호에게 보내는 편지 | 김정희, 과천시절, 24×93.5c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4호



벼루 열 개, 붓 천 자루 써 버리며 磨穿十研 禿盡千毫 書簡 | 김정희, 1856년, 32×40cm, 개인소장(복제)



임윤주비 臨尹宙碑 | 김정희, 연대미상, 28.5×21.2cm, 사진



독우물 甕井 | 말년에 과지초당에 머무는 동안 추사가 직접 물을 길어 마신 독우물이 있다. 독우물은 독(항아리)을 묻어 우물을 만들었기에 독우물, 또는 웅정(甕井)이라고 한다.

